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공홀과 겸손과 오래 참음**

[골 3: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공홀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도들이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즉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라는 뜻이다. 성도의 도덕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에 근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짓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거룩을 단번에 입혀주신 후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격려하신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표현한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말한다. 선택의 가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특별한 사랑과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에 선택의 가치가 있다.

선택의 목적과 증거는 거룩함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죄들을 씻어 깨끗케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다(엡 1:4). 성도(聖徒)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여진 자들이다(고전 1:2). 그러므로 사람이 죄와 불신앙 가운데 사는 것은 버려두신 증거이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짓음을 받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은 선택받은 증거이다.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을 열거한다. 먼저 ‘공홀과 자비’를 말한다. ‘공홀’이라는 원어는 ‘공홀의 심정’이라는 말이다. ‘공홀과 자비’는 비슷한 단어이다. 공홀과 자비는 멸시, 학대, 악행과 반대되는 말이다. 그것은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향해 공홀과 자비의 심정을 가지셨다.

죄의 결과들을 보면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하다. 건강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사랑이 넘쳐야 할 사람들에게 죄로 인하여 고생스럽고 불행한 일들이 많다. 거기에는 온갖 질병들과 전염병들과, 기쁨, 흥수, 태풍, 폭설, 지진, 화산, 해일 등 자연 재해들이 있다. 또 인간 사회에는 미움과 싸움, 위협과 납치, 폭행과 살인이 있고 배신과 이혼이 있고 각종 사고들이 있고 비참한 전쟁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사람은 늙고 쇠약해지고 마침내 죽고 만다. 이 불행이 다 죄값이다. 공홀과 자비는 이런 불행들을 안고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심정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본받아야 할 마음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불행을 안고 사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들을 향해 서도 공홀과 자비의 심정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본문은 또 ‘겸손과 온유’를 말한다. 겸손과 온유는 공홀과 자비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가지는 덕이다. 겸손과 온유는 교만, 높은 마음, 자랑, 멸시, 거친 말에 반대되는 말이다. 교만은 마귀가 정죄 받은 죄이며(딤후 3:6) 사람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악이다(잠 16:18).

교만은 사람이 흠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인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긴 어리석은 죄악이다. 사람은 자신을 바로 알 때 겸손해질 수 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같은 나라고 표현하였다(창 18:27). 더욱이,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죄와 부족이 많은 자이다. 완전히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의 마음에는 악과 거짓이 있어서 때때로 그것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죄와 부족을 깨닫고 겸손해야 한다. 죄와 부족이 많은 인생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렁이 같은 너 아굽아’라고 부르셨다(사 41:14).

겸손과 온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다. 예수께서는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다(마 11:29).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눅 2:21) 인간 부모에게 복종하셨고(눅 2:51)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눅 2:41-42). 그는 30세쯤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마 3:13-17). 그는 사람들과 함께 33년 동안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극한 겸손의 사건이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 직분자들에게 꼭 필요한 덕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야 한다. 교만은 마귀의 죄악이요, 겸손은 주 예수님의 덕이다.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하였다(민 12:3).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곁에 두고 늘 읽음으로써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교훈되어 있다(신 17:18-20). 오늘날도 성도들과 교회 직분자들은 겸손과 온유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마 20:26-27).

본문은 또 '오래 참음'을 말한다. 오래 참음은 조급함과 반대된다. 조급한 자는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는 자제심이 적고 쉽게 성질을 내고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잘한다. 그러나 오래 참는 사람은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는 비록 자기에게 잘못을 행한 자에 대해서도 그들이 바른 생각과 깨달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는 여유를 가질 것이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상대의 잘못은 아마 과거의 나의 잘못이었고 또 미래의 나의 잘못일 수도 있다. 사람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생각한다면, 성급하게 남을 정죄하고 격노할 것은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했다(13:4). 우리가 상대방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잘못으로 인해 상한 우리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고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무엇보다 오래 참는 것이다. 그것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사람은 반복해 하나님을 대항하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노하기를 더디 하셨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열거한다. 첫째는 긍휼과 자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이므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교회로 인도해야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의 부족과 연약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둘째는 겸손과 온유이다. 우리는 피조물인 인생, 특히 죄인인 인생에게 합당치 않은 교만과 높은 마음을 다 버리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과 온유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께서는 친히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교훈하셨고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오래 참음이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아는 자는 상대의 부족을 볼 때도 오래 참을 수 있다. 또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가지신 사랑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연약한 형제들을 향해 오래 참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두 짐승

[계 13:1-2]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전통사본)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본장에는 두 짐승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첫째 짐승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3에 예언한 대로,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불법[죄]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어떤 강력한 독재적 국가나 독재적 통치자일 것이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그 국가 혹은 인물이 열국들 중에서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 같다. 그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은 그가 많은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보인다. 그 짐승의 머리들에 참람된 이름들이 있는 것은 그가 심히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임을 나타낸다. 옛날 로마 황제들은 신적 명칭을 자신에게 돌렸었다. 천주교회의 교황들도 신성모독적이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렸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신성모독적인 것이다. 또 그 적그리스도는 표범같이 날쌔고 곰같이 덩

치고 사자같이 찢는 힘과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것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줄 것이다. 그 적 그리스도는 사탄의 도구인 것이다.

[3-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본문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한 지도자가 죽게 되었다가 회복되므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나라를 따르고 사탄이 그 나라에 권세를 주므로 온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에게 경배하며 그 나라에 경배하며 그를 높이고 추앙할 것을 보이는 것 같다. 장차 온 세상은 불경건하고 반기독교적이게 될 것이다. 사탄 승배는 보편화될 것이다.

[5-7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서와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람된 말들을 많이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4:15). 또 사도 바울도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살후 2:3-4).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42개월 즉 3년 반 동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즉 온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며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그때 성도들은 큰 핍박과 감금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결코 그 악의 세력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은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것이다.

[8-10절]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창세 이후로’라는 말은 ‘죽임을 당한’이라는 말에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짐승의 제물로 표현되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느 시대에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속죄신앙이 참 신앙이다. 우리의 의(義)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성도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악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러나 속죄신앙이 없는 자는 실패할 것이다. 구원은 종교적 형식에 있지 않고 속죄신앙 여부에 있다. 속죄신앙을 가진 자들만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의로우시므로 악한 자들의 악에 대해 공의로 징벌하실 것이다. 성도들을 사로잡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사로잡힐 것이며 성도들을 칼로 죽이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진실한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며 고난 중에 참고 기다려야 한다.

[11-12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짐승을 보았는데, 그것은 새끼양 같았다. 이 둘째 짐승은 16장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로 불리며(계 16:13; 19:20; 20:10)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것의 근원을 보인다. 배교한 교회는 세상에 속한다. 그것이 어린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인 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하는 말은 사탄의 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배교한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하고 복종하게 한다.

[13-15절] [그 짐승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배교한 교회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주의 교회이다. 주께서는 재림 직전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4:24). 사도 바울도 “악한 자의 입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고 예언하였다(살후2:9-10). 또 배교한 교회는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며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을 죽일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16-18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배교한 교회는 사람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은 장차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 벌써 이런 유의 통행증이 어떤 곳들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짐승의 숫자 666은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는 글자로 수를 표시한다. 예컨대, 히브리어로 ‘로마 사람(로미시 רומיטי)’, ‘로마 왕국(로미시 רומיטי)이나 헬라어로 ‘이탈리아 교회’(이탈리카 에클레시아 Ιταλικά Εκκλησία), 또 라틴어로 교황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 vicarius filii dei) 등은 다 666이 된다. 종교 개혁자들, 루터와 칼빈, 존 낙스 등과 존 웨슬리와 요나단 에드워드 등은 로마 천주교회와 교황을 그 짐승으로 보았다. 또 다른 이들은 666이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나라나 인물을 가리킬 것이라고 본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속죄신앙을 가져야 한다. 8절,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녹명(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와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밖에 없다. 우리는 속죄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복음 신앙이며 구원 신앙이다.

둘째로, 우리는 은사주의, 기적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했다. 주의 재림 직전에 배교한 교회의 한 특징은 은사주의적이다. 우리는 기적들과 초자연적 은사들에 미혹되지 말고, 바른 교훈을 붙들고 바른 삶을 중시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특히 우상숭배를 조심해야 한다. 두 번

째 짐승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도 경배하게 하였으며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였다. 주의 재림 직전에는 배교와 우상숭배가 유행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로, 주 예수의 재림 직전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며 큰 핍박의 때가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심히 불경건하고 불법한 자이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며 거짓 선지자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것이며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 666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매매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 마지막 대 환난 시대의 성도의 덕은 인내와 믿음이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의 재림과 천국과 영생을 굳게 끝까지 소망하며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수요일 설교

유다의 구원

[속 12:1-14]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의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람의 불행으로부터의 구원과 회복, 곧 그 영광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와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만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고 그 은혜만 더욱 사모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는 참으로 구원하시는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구주 하나님만 믿고 그의 보호와 그의 능력을 믿고 그의 원수들과 우리의 원수들인 사탄과 악령들과 악인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구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셨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또 우리는 이제 모든 죄를 버리고 성경 교훈대로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한다.

책 안내 전화: 02-334-8291

- 신약성경 전통본문 옹호. 166쪽.
- 공산주의 비평. 4판. 44쪽.
- 요한1,2,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
-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강해. 2판. 169쪽.